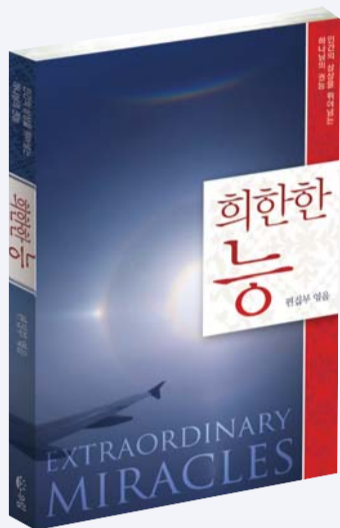


성경에 나타난 ‘희한한 능’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행 19:11~12)

1세기 중엽, 로마의 4대 도시 중 하나이며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펼치게 한 것이다. 신이라 여길 정도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참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할 수 있었다.

에베소는 로마의 정치,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므로 그곳을 복음화하는 것은 영향력이 컸으며, 그런 만큼 복음에 능력을 더하기 위한 기적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추앙하는 등 우상 숭배가 범람하며 갖가지 주술적인 행위가 성행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아온 거짓 술수나 악한 영의 역사와 차원이 다른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야 했다(롬 15:18).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더러는 마음이 강박하여 그를 비방하는 이들도 있었으므로 그 후에는 2년 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 과정에서 그가 지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악귀까지 나갔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에베소 전역은 물론 아시아에 퍼졌고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희한한 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성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레 11:45, 살전 4:3, 마 5:48). 성결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권능이다.

시편 62:11에 “하나님이 한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결코 원수 마귀

사단이 권능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권능은 많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입증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행 3:22) 뜻을 전하고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 계심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성경을 보면 권능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이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집사라 할지라도 빌립이나 스테반과 같이 마음이 성결하고 합당한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어 역사하셨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큰 권능을 행한 사람이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성결하고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표적은 물론, 기사와 희한한 능, 기이한 일들로 함께하신다.

물론 온전한 권능을 행하려면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아직 이 차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성결의 단계에 들어와 그 중심이 바뀌지 않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여기에 불같은 기도의 양을 쌓는 만큼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

아직 성결하지 못해 스스로 권능을 펼칠 만한 차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는 사람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을 안수하여 보냈을 때 그들에게도 표적이 따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마 10:1). 하지만 그러한 것은 지속적이지 않다. 오직 성결하여 권능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역사가 따른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은 얼마나 그분의 마음에 합치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권능의 1단계는 갖가지 질병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단계이며 병 고치는 은사와는 다르다. 권능의 2단계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잠시 몸을 떠난 영혼을 불러올 수 있다. 권능의 3단계는 모든 종류의 표적과 함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권능의 4단계는 천기를 움직이는 기사가 나타나고 무생물도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따른다.

이처럼 권능을 행하는 사람 편에서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도 준비된 그릇의 한계 안에서만 역사된다. 권능의 4단계 이상의 차원에 있는데, 이 단계부터는 어떤 한계가 없으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예컨대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 후 단에서만 기도했는데도 동시에 수천, 수만 명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기사가 따르고, 사진이나 이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사공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역사 등 영의 공간을 활용한 역사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를 믿고 기적을 말하는 의사들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더 믿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하며 의학의 힘을 넘어선 ‘디버인 힐링(하나님에 의한 치유)’을 외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영혼들을 위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한계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5536, 5615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개안·청년·비율·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